

# 암호화폐시장 투자 건전성 확보 시급!

광주 MBC 라디오칼럼

이흥노 교수

GIST 블록체인경제 센터장

11 월 8 일

미국 뉴욕 주 검찰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건전성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돌아온 답변을 거래소가 공개적으로 제공해왔던 정보들과 비교해서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2018 년 9 월 18 일에 공개했습니다. 이 조사는 뉴욕 주에서 영업하는 13 개의 거래소에게 질문 서한을 보내고 자발적인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세금부과 업무를 관장합니다. 암호화폐 발행을 증권으로 보는 경우 증권시장을 규율 감독하는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은 일반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와 투자자를 기만하는 불공정한 행위들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시장을 유지하도록 규율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어떻게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어떻게 거래의 정직성을 담보하고 있는 지 소비자와 투자자는 알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한다고 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1.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자동거래나 알고리즘거래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2. 전문적인 투자자들로부터 소규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3. 거래소종업원들이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가?
4. 사이트 다운 및 거래 중단 기록을 수집하고, 그 기록을 공개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설문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3 개 거래소 중 단지 9 군데만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거래소들의 현재의 영업행태는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는 것 입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첫 째, 거래소는 가상화폐의 거래시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교환소 역할 뿐만 아니라, 딜러 역할과 투자자 역할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거래소와 고객 간에 강 대 약의 구도가 형성되고, 공정경쟁이 어렵다. 우월적 비공개 정보를 갖고 있는 거래소가 고객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이 없다.

둘 째, 공격적 투자자는 Bot 이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이런 것을 활용하여 가격을 조작하는데 쓸 수도 있다. 이런 행위를 감시하고, 이상행위가 감지될 시에 즉각 거래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감시 및 중단 조치를 의무로 생각하지도 않는 거래소가 다수이다.

셋 째, 거래소가 고객의 자산을 실제로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를 일관되고 투명하게 감사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고객은 불법적인 인출이나 해킹과 같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고 발생시 보호를 받을 보험이나 정책적 지원도 제공받지 못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뉴욕검찰청은 현재 가상화폐시장은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시장 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뉴욕 주도 우리나라와 같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최첨단 미래산업으로 보고 발전추이를 그저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지 못 하면 신 산업을 성장 시킬 수 없을 것 입니다. 저는 이 번 칼럼을 통해 투자자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제공자와 규제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숙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자료.

1. Attorney General, Barbara D. Underwood, "Virtual Markets Integrity Initiative: Report," Office of the New York State, September 18, 2018. <https://virtualmarkets.ag.ny.gov/#section6>.